

고물가·고유가 지속... '생필품 가격 안정' 화두

유통업계, 소비자 부담 완화... 초저가·가성비 상품 선배 정부, 국비 30억 투입...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추진

고물가·고유가로 민생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민 생필품 가격 안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생리대 등 필수 위생용품으로까지 확대. 유통업계는 잇따라 초저가·가성비 제품을 내세우며 얼어붙은 소비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날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 102.20%, 전남 109.5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보다 광주 4.57%, 전남 9.16% 오른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광주 97.63%·전남 100.42%, 2022년 광주 104.96%·전남 102.75%, 2023년 108.20%·전남 113.68%, 2024년 광주 112.57%·전남 121.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광주 108.46%·전남 119.41%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의 광주·전남지역 기업형 슈퍼 7곳의 중형 생리대(36개입) 가격을 보면 한 꾸러미당 1만 3400원으로, 1년 전 8900원보다 50.6%



올랐다. 특히 관련 제품의 전국 평균 가격이 1만3124원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전남 지역 판매점 가격이 276원 더 비쌌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고물가 속 필수 위생용품 가격 부담 완화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이달부터 개당 '99원' (중형 기준) 초저가 생리대를 단독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초저가 생리대는 100%

국내에서 생산한 '셀리의법칙 니즈원 생리대' 4종이다.

중형 14매 (개당 98.57원, 1380원), 대형 10매 (개당 148원, 1480원), 오버나이트 8매 (개당 185원, 1480원), 팬티롱라이너 18매 (개당 82.2원, 1480원) 로 구성했다.

4종의 초도물량은 평균 약 7700팩으로, 1인당 종류별로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생리대는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판매하는 제조사 브랜드(NB) 상품으로 홈플러스는 생리대 가격 안정을 위해 브랜드보다 제품에 집중하고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마트는 생리대 50여종을 대상으로 '5000원 균일가' 행사와 1+1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상품과 프로모션을 준비 중

이다.

다이소는 '개당 100원' 수준의 초저가 생리대를 내놓으며 중저가 시장에 본격 개세했다.

아성다이스는 종합제지기업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매 1000원 (개당 100원) 생리대'를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깨끗한나라가 100% 국내에서 생산하며, 현재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깨끗한나라 생리대 (개당 200~250원) 대비 최대 60%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이따른 유통업계 초저가·가성비 상품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생리대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단순 소비재가 아닌 '필수재'로 분류되기에 실제 대형마트 생리대 매대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관련 매대를 찾는 소비자들의 전에 비해 늘었다"며 "필수 위생용품은 여성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재이다. 고물가 시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싼 생리대라는 이미지가 품질 저하나 안전성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필요한 사람이 생리대를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약 30억원이 투입되고 내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유통성 기자 yoi404@

직원 사칭 납품 요구 적발 소진공 "사기 주의" 당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공단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의 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업체와 협력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사칭 사기 시도는 공단 직원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긴급 상황 등을 이유로 접근하며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단 명의의 명함을 제시하거나 공단 관계자인 것처럼 신뢰를 유도해 특정 물품의 납품이나 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이 시도된 정황도 나타났다.

이에 소진공은 모든 물품 구매와 용역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의 물품 구매와 계약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며,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 납품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와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성 기자 yoi404@



"K-김밥 만들어요" 12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황룡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동 워크숍 '문화를 나누는 글로벌 테이블' 행사에서 이선재 총장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김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상의, '워라밸+4.5 프로젝트' 확산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최대 60만원 등 밀착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지역 내 확산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종업원 수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기업의 도입 수준과 규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주당 실근로시간을 2시간 미만 단축하는 '부분도입'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30만원이 지원되며,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전면도입' 기업에는 월 40만~50만원이 지원된다.

또 생명·안전 관련 업종이나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경우 월 60만~80만원의 별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주상의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 인식 확산 활동과 참여 희망기업 대상 자문·상담, 우수사례 발굴, 지역 거버넌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

농어촌공사, AI 활용 업무혁신 나선다

농촌공간계획 지원 강화... 행정 처리 30% 단축 목표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기술 내재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과 농촌공간계획 지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지역개발지원단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업무 효율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방식 혁신과 행정 처리 효율화를 통해 농촌공간 정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계획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과 농촌협약 체결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농촌 교통 맞춤형 모델 개발' 등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업무 범위와 업무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개발지원단 직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공사 인공지능 담당

자의 이론 강의로 시작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질문 작성 기법 등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챗피티'와 '제미니' 등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방법을 익히고, 선인 연구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 협업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공사 지역개발지원단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여 업무 생산성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법령 요약과 자료 시각화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업무를 자동화해 처리 시간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단순·반복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줄이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에 보다 깊이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인공지능 활용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2026.03 vol. 154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의 CEO

서형호
휴비스코리아 대표

화제의 인물

남영숙
대한민국 화워 명장

남도예술인

정성우
씨네로드 대표